



가나가와현

KANAGAWA

육아와 훈육에 어려움을 느낄 때에는...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훈육으로 즐겁게
육아하기가나가와현 아동상담소

韓國語

들어가는 말

‘아이에게 체벌은 정말로 안 되나요?’

네. 법률이 개정되어 훈육을 위한 체벌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을 때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을 깨우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체벌은 아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육아 면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육아로 많이 힘드시죠?

이 리플릿은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육아를 위해 힌트를 드리고 보호자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창 육아로 고군분투 중인 네 식구를 소개합니다.

등장인물 소개	2P
만화 ‘어느 날의 가족’	3P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훈육으로 즐겁게 육아하기	11P
각종 상담처	13P

등 장 인 물 소 개



아빠 마모루 30 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 활동량이 많은 하루토때문에 가끔 호통을 치거나 손이 나갈 때도 있다.



엄마 이쿠요 28 세

밝고 상냥한 엄마. 메이가 만 1 세가 된 것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에 복귀했지만, 육아와 가사, 일에 쫓겨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



오빠 하루토 4 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건강하고 활발한 남자 아이.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며 정리정돈은 아직 좀 서툴다.



여동생 메이 1 세

하루토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자 아이. 말을 배우기 시작해 오빠 흥내를 내며 아장아장 뒤를 따르는 모습이 귀엽다.

① 정리정돈

이렇게나
어질러 놓다니...

간식 줄테니까
이제 정리할까?

싫어! 더
놀거야.

엄마~
간식~



지금 당장
치워!

안 그러면 다
버릴거야!!

왜 맨날 나만...
메이는 안
치우는데...

간식~~



생각해 보면
하루토도 아직 4 살인데...
혼자서 다 치우는 건
무리였어.



응!

소리 질러서 미안.
엄마가 도와 줄게. 치우고나서
엄마랑 같이 간식 먹자.

정리~



포인트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지만 차분하게 다시 생각한 후 행동했네요. 치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지 알려 주면서 아이와 함께 정리한 점이 좋았습니다.

뭐!?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평소보다 빨리
출근해야 하는데...

아직 양말
안 신었어

얼른 신어~
엄마가 도와 줄까?

엄마~
가자~

아니야!
내가
신을거야!

그리고보니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그러셨지...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다 신었다!

혼자서
신고 참
대견하네

엄마, 나
혼자 했어

포인트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아이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기다려 주면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고 기분 좋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휴일 출근
비 오는
토요일...

우왓!
뭐 하고
있는거야!

예~!



메이도

소파에서 뛰지
말라고 몇 번
말해야 알겠어!

으앙~



아무리 위험하다지만
하루토를 때리다니...

으아~앙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야말로 때려서
미안

으아~앙

떨어지거나 서로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소파에서는
뛰면 안 되는거야

방에서 재미있게
놀자

아빠, 그럼
이 책
읽어줘

포인트

어른도 잘못을 하면 이 아버님처럼 사과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에게는 왜 위험한지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나른하고 머리도 아파...
못 일어나겠는데.. 어떡하지...

아빠는
출장 중
피곤이
극에
달한
목요일...

참.. 남편은 출장
중이라 없지....

엄마~

메이, 비켜.
엄마 덮어
줘야지.



회사에 쉰다고 연락하고...
어린이집 등원만이라도
누군가한테 부탁을...

엄마,
괜찮아?

엄마~
일어나~

으...응.
괜찮아.



과장님이세요?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싶은데요...

패밀리 서포트
센터인가요?
갑자기 죄송하지만 등원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
괜찮아요~



하원을 부탁하고 있는 패밀리 서포트 센터의 ○○씨에게
우선 연락해 보자.

몸은 좀 어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 날
저녁...

들 다 씩씩하게
잘 지냈어요



포인트

무슨 일이 생겨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대신 봐 줄 사람을
미리 알아두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훈육으로 즐겁게 육아하기

만화 ‘어느 날의 가족’ 어떻게 보셨나요?

엄마, 아빠 모두 무심결에 소리를 지르거나 때로는 아이를 때리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완벽한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족의 좋았던 점은 실수를 했을 때 아이에게 사과를 하거나 대응 방법을 바꾸는 등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노력한 점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애정을 느끼고,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성장한다는 점을 배웁니다.

물론 아이의 연령대와 성격, 상황에 따라 대응은 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성장하고 부모 또한 함께 성장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빌려가며 당신과 당신의 아이에게 맞는 육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호자 여러분에게 육아는 처음 하는 경험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고민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요. 그럴 때엔 만화 ‘어느 날의 가족’을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칼럼

체벌은 왜 하면 안 되나요?

후생노동성 자료에서 부모에게 체벌을 받은 아이는 전혀 받지 않은 아이에 비해 ‘차분하게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약속을 못 지킨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참을성이 없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단체행동을 잘 못한다’ 등의 경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아픔에 익숙해져서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폭력의 강도가 더욱 심해지고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래는 전부 체벌에 해당합니다

- 말로 세 번 주의를 주었지만 듣지 않아 뺨을 때렸다
- 중요한 물건으로 장난을 쳐서 장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 있게 하였다
- 친구를 때려서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아이를 때렸다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엉덩이를 때렸다
- 숙제를 하지 않아서 저녁밥을 주지 않았다
- 청소를 하지 않아서 걸레를 얼굴에 들이대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 농담으로 ‘너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했다
- 의욕을 유도한다는 핑계로 다른 형제와 비교하며 깎아내렸다

후생노동성 ‘체벌에 의존하지 않는 육아를 확산시키자!’에서 인용

저희는 아이들의 성장과 여러분의 육아를 있는 힘껏 응원하고자 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간다’, ‘육아 고민을 털어 놓고 싶다’ 등, 고민이 있을 때 마음 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털어 놓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편안해질 지 모릅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이 상담할 수 있는 다양한 곳들을 기재하였습니다. 기재된 곳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고 있으므로,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상담처

가나가와현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	전화	소관 지역
중앙 아동상담소	0466-84-1600	후지사와시, 지가사키시, 사무카와마치
히라쓰카 아동상담소	0463-73-6888	히라쓰카시, 하다노시, 이세하라시 오이소마치, 니노미야마치
가마쿠라 미우라지역 아동상담소	046-828-7050	가마쿠라시, 즈시시, 미우라시, 하야마마치
오다와라 아동상담소	0465-32-8000	오다와라시, 미나미야가라시, 니카이마치, 오이마치, 마쓰다마치 야마키타마치, 가이세이마치, 하코네마치, 마나즈루마치, 유가와라마치
아쓰기 아동상담소	046-240-6430	아쓰기시, 에비나시, 자마시 아이카와마치, 기요카와무라
야마토 아야세지역 아동상담소	0466-81-8066	야마토시, 아야세시

현 내의 타 자치체 아동상담소

아동상담소	전화	소관 지역
요코하마시 중앙 아동상담소	045-260-6510	쓰루미구, 가나가와구, 니시구, 나카구, 미나미구
서부 아동상담소	045-331-5471	호도가야구, 아사히구, 이즈미구, 세야구
남부 아동상담소	045-831-4735	고난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도쓰카구, 사카에구
북부 아동상담소	045-948-2441	고호쿠구, 미도리구, 아오바구, 쓰즈키구
가와사키시 어린이가정센터	044-542-1234	가와사키구, 사이와이구, 나카하라구
중부 아동상담소	044-877-8111	다카쓰구, 미야마에구
북부 아동상담소	044-931-4300	다마구, 아사오구
사가미하라시 아동상담소	042-730-3500	사가미하라시
요코스카시 아동상담소	046-820-2323	요코스카시

각종 상담전화

상담전화	전화	비고
어린이 가정 110 번	0466-84-7000	9:00 ~ 20:00
인권·어린이 핫라인	0466-84-1616	9:00 ~ 20:00 (어린이 전용·신고 전용)
아동상담소 확대 대응 다이얼	189 (무료)	24 시간 대응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	0120-189-783 (무료)	

시정촌 창구

시정촌	담당과	아동상담 담당과 직통
히라쓰카시	어린이가정과	0463-21-9843
가마쿠라시	어린이상담과	0467-23-0630
후지사와시	어린이가정과	0466-50-3569
오다와라시	어린이청년지원과	0465-46-6763
지가사키시	어린이육성상담과(지가사키시 가정아동상담실)	0467-81-7170
즈시시	육아지원과	046-873-1111 (대표)
미우라시	어린이과 부모상담센터 히나타봇코	046-882-1111 (대표)
하다노시	어린이가정지원과(상담 전용 다이얼)	0463-82-5273 0463-84-7800
아쓰기시	가정상담과(상담 전용 다이얼)	046-221-0181·0182
야마토시	스쿠스쿠육아과	046-260-5618
이세하라시	어린이가정상담과	0463-94-4642
에비나시	육아상담과	046-235-4825
자마시	어린이가정과	046-252-8026
미나미아시가라시	어린이과	0465-73-8072
아야세시	건강만들기추진과	0467-77-1133
하야마마치	어린이육성과	046-876-1111 (대표)
사무카와마치	육아지원과	0467-74-1111 (대표)
오이소마치	육아지원과(육아지원 종합센터)	0463-71-3377
니노미야마치	어린이·건강과	0463-71-7100
나카이마치	복지과	0465-81-5548
오이마치	육아건강과	0465-83-8012
마쓰다마치	육아건강과	0465-84-5544
야마키타마치	복지과	0465-75-3644
가이세이마치	육아건강과	0465-84-0327
하코네마치	육아지원과	0460-85-9595
마나즈루마치	복지과	0465-68-1131 (대표)
유가와라마치	어린이지원과 육아지원센터(유타폰)	0465-20-4940
아이카와마치	육아지원과	046-285-6932
기요카와무라	보건복지과	046-288-3861



가나가와 어린이 가정 110 번 상담 LINE



LINE

친구 추가해
주세요

익명(LINE 상의 등록명과 프로필 사진만)
으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접수 기간】(연말연시 제외)
월요일~토요일 9시부터 21시까지

▶ Other Languages



English 英語	中国語 中国語	한국·조선어 韓國·朝鮮語	Español 스페인語	Português 포르투갈語
Tagalog 타갈로그語	ภาษาไทย 타이語	Tiếng Việt 베트남語	ភាសាខ្មែរ 캄보디아語	ລາວ 라오스語

監 修 子どもの虹情報研修センター 川崎二三彦

日本女子大学名誉教授 鶴養美昭

武蔵野大学看護学部 中板育美

作成・発行 神奈川県児童相談所

デザイン・印刷 有限会社 湘南グッド